

또 한해가 가 버린다고  
한탄하며 우울해 하기 보다는  
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 
고마워 하는 마음을  
지니게 해 주십시오

진정 오늘 밖에 없는 것처럼  
시간을 아껴 쓰고  
모든 이를 용서 하면  
그것 자체가 행복일텐데

한 해 동안 받은  
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 
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 
선한 마음으로 봉헌 하며

이런 행복까지도  
미루고 사는  
저의 어리석음을 용서 하십시오

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 
사랑하는 이들에게  
띄우고 싶은 12월

보고 듣고 말 할것  
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 
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 
눈은 순결하게  
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 
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 
계속하게 해 주십시오

이제 또 살아야지요  
해야 할 일들 곧 잘 미루고  
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

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 내고  
새 달력을 준비 하며  
조용히 말 하렵니다  
'가라, 옛날이여'  
'오라, 새 날이여'  
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 
고마운 시간들이여

나에게 마음 달아 걸었던  
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 
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

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제가  
올해도 입지만  
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



◀그때 그랬지▶ 광고카피의 변화

어릴적 교가는 잊어버려도 늘 남아있는 짧은 문구....

<영양보다 배부름이 우선인 50년대> "살찌는 가을 영양보충에 『해태 카라멜』"

<재건을 외치던 60년대> "음식맛을 낼 때는 『신선로표 미원』"

<감각이 고개들기 시작한 70년대> "주고싶은 마음, 먹고싶은 마음 『퍼모스트』"

<낭만을 찾을만한 여유가 생긴 80년대> "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 
『맥심 커피』"

<다시 인간의 정이 그리운 90년대> "여보,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겠어요!  
『경동보일러』"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	2004년 교회생활: "바보 같은 교회"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6권 51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12월 19 일
☎369-5077/525-3858 .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byus.net		

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 '임마누엘'



네가 홀로 있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사람들이 너를 배척할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 생각할 때에  
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네가 절망에 빠져 슬퍼할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  
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할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너와 친구 사이에 벽이 생길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네가 걱정으로 잠못 이룰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누군가가 너에게 고통을 안겨 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너의 걱정을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너에게 세상이 무너져내릴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사랑이 좀 더 필요할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아무도 너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네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게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는 태양처럼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네 근심을 나누는 누이처럼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네 편에 서는 형제처럼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너와 함께 느끼고 너를 온통 이해하는 어머니처럼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  
네게 영원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너의 아버지처럼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.

너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하여 네 곁에 있으리라

◀딸아!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(5)▶

운전 중 양보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는가 살펴 보아라.  
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는지도 눈 여겨 보아라.  
무슨 일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법인데 그 다른  
사람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패만 한다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Calvary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3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56 (강림절 2)	
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주일학교 Sunday School		아동부
찬송 Hymn	89장	다 같이
기도 Prayer		김영길 안수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마태복음 1:21-23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은십자가 성가대
설교 Sermon	"예수님의 오심(4) 임마누엘로 오심"	김성국 목사
특송 Hymn		학생부 Orchestra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12월의 예배위원◆

◆12월의 교회력◆

일자	주일기도	헌금위원	주방봉사
5	최재학	김삼영	3구역
12	김교섭	김선영	4구역
19	김영길	김심홍	5구역
26	김순자	김인희	6구역

일자	주일	예배와 모임
5	대림절(2)	
12	대림절(3)	믿음의 어머니기도회(14)
19	대림절(4)	은십자가(구역장, 인도자, 담당권사) 성탄축하의밤(24)
26	송년주일	송구영신예배(31)

' 2004년 교회표어  
"바보같은 교회" (창6:22)  
\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  
\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

\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
\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

- 교우소식  
\*안부전해 온 윤형권, 신영화 집사 . 교회 홈페이지 '방명록' .... 글자와 행간속에 그림자처럼 매어달린 그리움을 묻혀 놓았습니다.
- 세례자 모임  
<일시> 오늘 Tea Time 후 교회 유아실 <세례식> 12월 25일 성탄예배
- 오늘은 "은 십자가성가대" : 구역장, 인도자, 담당권사와 장로
- 성탄축하의 밤 "Christmas with the family"  
<일시> 24일 저녁 6:30분 <리허설> 4:00pm <장소> Pump House(Takapuna)  
\*크리스마스 이브, 눈이 내려 주어야 좋을 것 같은 주님 오시는 밤입니다. 눈이 안 내려 준다해도 설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잊을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. 모두 함께 즐거움을 갖는 성탄전야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. Takapuna 호수같은 바다를 끼고 나누는 식사는 고국에서 맛볼 수 없던 새로운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 
\*성탄 이브의 밤에 웬지 허전해지는 이웃을 초청하여 행복한 날로 선물하세요.
- 성탄예배 <일시> 25일 새벽 12:30분-1:30분  
\*조금 피곤해도 새벽에 부르는 '고요한 밤 ~~~' '저 들 밖에 한 밤중에 ~~~', 찬송만 부르는 것으로도 양 지키던 밤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의 설레임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.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 시간까지 어디서 같이 지낼지 설레이는것을 보면 피곤함부터 생각나는 우리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.  
\*다음날은 '송년주일' : 수, 금, 토에서 계속 이어지는 송년주일입니다.
- 확대당회: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<일시> 오늘 저녁 6시 Hall
- "수요일예배 이웃교회 참석의 달" (예고) <12월 29일-1월 19일>  
\*금주 수요일예배를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예배로 드립니다. 다음주부터 한달동안의 수요일예배는 평소 참석해 보고 싶었던 이웃교회에 방문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고등어 장수  
곽재구

어느 날  
강변 내 오두막집 앞에  
한 고등어 장수가 달았습니다.  
먼 바다에서 온 그의 고등어들은  
소금에 잘 절여 파랗게 빛났습니다.  
고등어 값은 너무 비쌌답니다.  
난 이렇게 말했지요.  
왜 고등어 값이 싸다가 비쌌다가 그러지요?  
먼 바다에서 온 고등어장수가  
내게 말했답니다.  
당신 제일 가까운 곳의 사람의 마음조차  
헤아리지 못하면서  
먼 바다 고등어의 값을 어떻게 셈하겠소?

명예가 물질로 평가 받고 생명이 물질에 의해 저울질 되는 세상입니다. 그러나 생명은 생명으로만 상대하는 세상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?  
미물 같은 생선한 마리 값도 제대로 추량할 수 없기에 우리의 고귀함을 하늘에서 오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.  
내 옆의 가족, 교우의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생명의 성탄입니다.